

제3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강정



소설 / 서준환



독립 문학 공간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3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등단 이후 꾸준히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강정(46) 시인과 서준환(47) 소설가가 그 주인공. 김현문학패 수여식은 2017년 9월 22일(금)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천만 원, 소설 1천5백만 원)이 주어진다.

감각적 무정부주의. “아이의 울음” 혹은 “핑크 음악”과 같은 서툼과 거침의 미학으로 언어를 충돌시키며 언어의 원초적 감각을 해방시키려는 필사의 노력.

강정 시인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2년 『현대시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처형극장』 『들려주려니 말이라 했지만』 『키스』 『활』 『귀신』 『백치의 산수』 등 6권의 시집과 『나쁜 취향』 등 3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의식적 무정부주의. 예외자들의 부각을 통해 미래의 꿈은 완성하려는 기존 소설 문법에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즉흥적인 “다음 세기 그루브”를 겨냥.

서준환 소설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불문학과 연극을 전공했다. 2001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하여, 소설집 『너는 달의 기억』 『파란 비닐인형 외계인』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 『다음 세기 그루브』와 장편소설 『골드베르크 변주곡』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을 펴냈다.

*수상자와 김현 인물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3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시인 성기완과 소설가 한유주를, 제2회 수상자로 김태용 소설가와 이제니 시인을 선정한 바 있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성민엽,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16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69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14~2016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들에게 비공개로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27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3회 수상자로 시인 강정과 소설가 서준환을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제3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지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인간적 삶이 구체제를 총체적으로 해체·재구성하려는 범세계적 흐름에 발 디디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문학은 구체적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지금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동안 그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탐색이 이루어져 왔지만, 어느새 그 탐색들이 포기되고 훼손되는 모습 또한 빈번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문학적 무정부주의’라고 부를 만한 태도로 그 물음에 대한 지난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두 시인·소설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1971년생인 시인 강정은 그중에서도 ‘감각적’ 무정부주의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다. 그의 새로운 시적 실존의 추구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고스란히 기존의 언어 체계에 갇혀 있다는 모순된 깨달음과 겹쳐지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그에게 그 언어의 감옥은 곧 자신의 몸인데, 그 몸을 벗어나려는 인간 꿈은 죽음·재생의 강박관념 속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성적 정체성 문제가 반복된다)와 자학적·가학적 파괴 행태로 이어지며, 그것을 통해 몸속에 갇힌 원초적 감각의 소리를 포착하고 해방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가 “아이의 울음”과 같은 언어를 충돌시키며 시를 조립해나가는 이유가, 그럼으로써 ‘핑크’ 음악과 같은 서툼과 거칠기의 미학을 구축하고 시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반면, 1970년생인 소설가 서준환은 ‘의식적’ 무정부주의를 산문의 세계 속에 펼쳐나간다. 그의 새로운 소설적 실존의 추구는, 체제적 삶에 반하는 예외자들의 부각을 통해 다른 미래를 그려보려는 꿈이 예외자들의 증식과 보편화에 의해 뜻밖의 문제에 봉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과연 예외자들의 새로운 집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그는 기존의 논리(언어) 및 새로 생성되고 있는 논리(언어)와 정면으로 소설적 논쟁을 개시한다. 그의 소설적 논쟁은 정치, 철학,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있는바, 그것은 여전히 반-중심적인 즉 무정부주의적인 “다음 세기 그루브”를 겨냥하고 있다. 그 자신이 암시하듯 ‘프리 재즈’ 음악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강정의 시와는 또 다른 형태-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미리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문학은 전위적인 혹은/동시에 실험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매체인 언어에 거역하는 문학을 한다는, 어쩌면 불가능한 과업에 부단히 도전하고 있다. 일견 무모한 그들의 도전을 이제 와서 결산해볼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불가능성과의 투쟁이야말로 문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들의 도저한 전위적 의식과 실험적 실천은 인간 의식과 존재의 근원적 전환에 대한 요청과 맞닿아 있으며, 그 치열한 주제의식과 새로운 형식 사이의 어우러짐은 문학 고유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해 이즈음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전략적 의구심—실은 이 의구심의 배후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선정위원

김정환 (시인)

김태환 (평론가, 서울대 인문대 독문과 교수)

성민엽 (평론가, 서울대 인문대 중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